영암 무화과축제 열린다

14일부터 삼호읍 일대서

16일까지 다채로운 향연 펼쳐져

무화과의 최대 주산지인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18 영암무화과축제'가 열린다.

'꽃을 품은 무화과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참여행사, 체험행사 및 판매 행사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영암 무화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제작물로 무화과를 재배한 무화과의 첫 시배지이자, 전국 무화과의 생산량의 60%에 달하는 약 5,400톤을 생산하고 있는 '무화과의 고장'이다. 2015년도에 무화과 특구로 지정된 이후 영암 무화과는 생산 기반, 유통시설, 홍보마케팅 등에 집중 투자하여 품질개선은 물론, 전국적인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영암은 무화과의 시배지답게 오랜 세월 집약된 농민들의 재배 노하우와, 풍부한 일조량, 해양성기후의 해풍이 부는 최적의 생육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 무화과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특히 부드러워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무화과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즐겨먹어 여왕의 과일로 불릴 만큼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화과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이 풍부하여, 육류를 조리할 때 첨가하면 연육작용을 도와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으며, 쨈과 양갱 등 무화과를 활용한 가공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축제의 첫날인 14일에는 신명나는 삼호농협 풍물패공연 시작으로, 강강술래 시연, 개막식과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열려 본격적인 3일간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날인 15일에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어울림 무화과 노래방'을 비롯해 신선한 무화과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이벤트, 무화과 퀴즈 이벤트,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대회, 무화과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무화과 가요제 예선과 난타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축제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축제의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영암무화과 가요제 본선 경연 및 청소년 댄스공연, 색소폰공연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동안 마련된 상설 행사로 전통문화체험,무화과 홍보 전시관과 판매장과 직거래 장터에서 신선한 무화과생과 와 무화과 관련 제품 등 무화과의 고급스러운 맛은 물론 풍부한 볼거리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2018 영암무화과 축제는 우리나라 무화과의 첫 시배지이자,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암무화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창출을 통해 영암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뜻깊은 행사"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선진지 견학지로 부각

화순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로 타 시군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순농협로컬푸드는 총사업비 14억원 중 군비 4억원 기타 3억원 등 7억 원의 보조사업비가 투자됐으며 2017년 6월에 개장했다. 출하농가 290여명이 320여종의 품목을 취급하고 2017년 하반기 매출은 14억원이었다.

화순농협로컬푸드사업 추진시 초기에 시장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생관계 발전하고 있으며 도심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점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마트와 별도의 공간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채식뷔페 및 카페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곡농협로컬푸드는 산지유통센터 신축과 함께 17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군비 11억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 1월에 개장했다. 참여농가는 455농가로 422품목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7년 53억을 매출을 올렸다.

지난 8월 30일, 함평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회원 및 함평군관계자 등 43명이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화순농협로컬푸드 현황 청취, 직매장, 로컬푸드채식뷔페 및 카페 등 운영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또한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매출현황이 우수한 도곡농협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등 화순군 선진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전체 살림규모 4,907억 원

담양군은 지난달 31일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 결과를 담양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군의 살림규모는 4,907억 원으로 전년대비 537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56억 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2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25억 원이다. 지방채무는 '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공시는 2017년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개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했다. 담양군은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12개 사업을 특수공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함께 공개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소라초 여자분교 학생과 '민주주의' 대화

권오봉 여수시장이 소라초등학교 여자(汝自)분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은 지난 3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자도 선거일기' 영상제작에 참여해 여자분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날 김관우·송연우(4학년), 송지우(3학년) 학생에게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법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이며 그 방법이 투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는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우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권 시장은 본인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여자도 선거일기'는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선거 홍보영상으로 여자분교 학생들의 눈으로 본 선거과정을 담고 있다.

이날 촬영분은 여자분교 학생들과 권 시장이 6·13지방선거 기간 학생들이 마을주민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전체 홍보영상은 이달 중 한국선거방송에서 볼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쌍둥이마을' 여수 소라 중촌마을 유래석 설치

쌍둥이 다출산마을로 1989년 기네스북 등재

쌍둥이마을로 유명한 여수 소라 중촌마을에 쌍둥이마을임을 알리는 유래석과 표지석이 생겼다.

소라면은 지난달 29일 주민 참여 속에 현천1리 중촌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쌍둥이마을 유래석을,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유래석과 표지석 설치는 소라면의 브랜드사업 '이런 마을 보셨나요? 소라면 쌍둥이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라 이뤄졌다.

소라면은 쌍둥이 다출산마을로 1989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중촌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브랜드사업을 결정했다.

중촌마을은 1880년 초부터 1990년 초까지 75가구 중 35가구에서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때는 아이를 가지려는 여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도 했다.

유래석에는 마을 뒷산 약수가 효과가 있다는 것과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역이어서 쌍둥이를 출산한다는 설도 기록돼있다.

이상원 소라면장은 "중촌마을이 쌍둥이 다출산마을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음에도 관련 기록물이 없어 아쉬웠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마을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명태, 조기 등) 및 수입 수산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선물용 등에 사용되는 수입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등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완도지원은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